

##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네 사도의 변주: <피네건의 경야> 2권 4장 읽기

전 은 경

### I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켈트 전설에서 유래했으며 12세기에는 영국-노르만문학에서 많이 다루어진 중세의 로맨스이다. 이 로맨스는 바그너(Wagner)의 오페라인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를 비롯하여 현대에도 연극, 필름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영국 콘월(Cornwall)의 기사인 트리스탄은 아일랜드 기사, 모호트(Morholt)를 무찌른 후 숙부인 콘월의 마크 왕(King Mark)의 약혼녀인 아일랜드 공주 이졸데(또는 이졸트(Iseult, Yseult))를 아일랜드로부터 영국 콘월로 호위하여 오던 중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기사도적 연애의 원형처럼 간주되어왔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테니스슨(Alfred Tennyson),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 스윈번(Algernon Charles Swinburne)과 같은 작가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었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도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sup>1)</sup> 2권 4장에서 트리스탄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가 참조한 것은 조세프 베데에(Joseph Bédier)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로맨스』(*Le Roman de*

*Tristan et Iseut*(1900)로 알려져 있다(Glasheen ivi-ivii).

조이스는 1924년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와 “마마루조”(Mamalujó)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스케치를 작성했는데 수정을 한 후 제쳐 두었다가 1938년 『경야』 2권 4장에 이 두 스케치를 포함시켰다(Deppman 304). 이 스케치는 늦게 작품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2권 4장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네 사도인 매트(Matt), 마르쿠스(Marcus), 루카스(Lucas), 조니(Johnny)는 『경야』에서 『네 스승의 아일랜드 연대기』(*Annals of the Four Masters*)를 쓴 역사가들이다.<sup>2)</sup> 이들은 성서 기록자의 이름을 지녔지만 『경야』 2권 4장에서는 아일랜드에 사는 현대의 노인들이다.<sup>3)</sup> 『경야』 전체에 걸쳐 간간히 등장하지만 이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은 2권 4장이다. 이들은 언제나 넷이 함께 등장하여 집합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넷으로 분열되어 각기 개성적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sup>4)</sup>

조이스는 이 사도들에 대하여 “이 이야기꾼들은 늙었고 상상력은 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 . 마음도 심약하고 즐고 있는 노인들”이라고 했으며 “스트

- 1) 이후 『피네건의 경야』를 『경야』로 축약하여 표기함.
- 2) 1권 1장에서 이들에 대하여 “Mammon Lujius in his grand old historiorum, wrote near Boriorum, bluest book in baile’s annals”(13.20-22)라는 언급이 있다.
- 3) 『경야』에서 네 노인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인데 『경야』 2권 4장에서는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라는 성서기록자의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기독교에서 네 사도가 저술한 신약성서의 사복음서는 각각 특징이 다른데 가령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로 로마 군에게 함락당한 유대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보았고, 누가는 회람인 의사로서 국제적인 견지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으며, 요한복음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인들의 문화 수준에 맞추어 쓰여져 기독교가 지역성을 탈피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지녔음을 보인다. 네 사도의 성서의 특징이 『경야』 2권 4장에서 네 노인의 서술적 특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도 이들 서술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김철수, 2018 봄 한국제임스조이스 정기학술대회).
- 4) 넷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여러 상징적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가령 고대 아일랜드는 네 개의 주(provinces)인 얼스터(Ulster), 먼스터(Munster), 렌스터(Leinster), 코노트(Connaught)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계절과 동서남북의 방향도 넷이다. 한편 이들이 『아일랜드 연대기』의 저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세기 초 아일랜드에 있었던 네 개의 주요 신문 *Irish Times*, *Daily Express*, *Freeman’s Journal*, *Irish Independent*의 숫자와도 관련 지을 수 있었다(남기현, 2018 봄 한국제임스조이스 정기학술대회).

리에서 스토리로 떠돌듯이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노쇠함만 드러낼 뿐 이들의 이야기는 그 어느 것도 만족할만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다”라고 혹평을 했다(Ellmann 102). 『경야』의 다른 인물들이 그렇듯이 이들의 정체성은 유동적이어서 2권 4장에서는 배의 “네 개의 앞 돛”(foremasters, 385.35), “네 명의 선생”(four masters, 394.17), 또는 “아일랜드의 네 개의 큰 파도”(the four maaster waves of Erin, 384.6), “네 개의 파도”(the four waves, 384.8)로 등장하기도 한다.<sup>5)</sup> 2권 4장에서 이들은 “아일랜드의 일”(matther of Erryn, 389.6)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도로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는 거칠고 호색적이어서 원래의 궁중 연애 로맨스가 지녔던 고아(高雅)함과는 거리가 멀다.

서술의 방식과 어조는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토리텔링에서 서술자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서구 문학에서 비극적 사랑의 원형과 같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마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이스 자신도 불만스럽게 언급했던 쇠잔한 아일랜드의 노인이 하도록 서술자로 설정한 것은 의외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이야기에 기대되는 열정과 비극성을 감성도 메마르고 기억력도 감퇴한 네 노인들의 의식과 언어로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믹하기까지 하여 원래의 이야기에 내재해있는 진지함이나 로맨틱한 감정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토리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왜곡하거나 파편화하고 있다. 서술자와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할 사안은 네 사도들은 역사가들로 문학적 상상력을 요하는 이야기를 역사가들이 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에는 과거에 대한 회고담과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트리스탄 이야기는 사실상 역사서술과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관계를 단순한 남/녀의 사랑보다는 정치와 권력의 맥락에서 보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네 사도들의 특이한 서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경야』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당위성과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5) “four master waves of Erin”은 아일랜드 해안에 있는 네 개의 큰 곳을 의미하기도 하다.

## II

2권 4장은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타고 있는 배의 주변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의 소리로 시작한다. 갈매기들은 조카인 트리스탄이 자신의 예비 신부인 이졸데와 선상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속수무책으로 있는 늙은 마크 왕을 조롱하는 시(詩)를 노래한다.

마크 씨에게 껍 소리를 세 번 질러봐요!  
 틀림없이 그는 고향소리 한번 내지 못 할거요  
 하기가 그가 뭘 한다고 한들 모두 헛다리 짚는 격이지요.

.....  
 호호호호, 털 빠진 마크!  
 당신은 노아의 방주에서 퍼덕거리며 날아온 괴상한 늙은 수탉  
 하기가 당신은 자신이 꽤 위세 당당한 수탉인줄 알고 있겠지만.  
 새들아, 날아 오르렴! 트리스티는 팔팔한 젊은 불꽃  
 그 힘으로 그녀를 덮치고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에 들어 그녀를 사로잡을 것이다  
 깃털의 공지 한번 움짚하는 법이 없이  
 이런 방법으로 그 녀석은 돈과 명성을 거머쥔 것!

*Three quarks for Muster Mark!*  
*Sure he hasn't got much of a bark*  
*And sure any he has it's all beside the mark.*

.....  
*Hohohoho, mouly Mark!*  
*You're the rummest old rooster ever flopped out of a Noah's ark*  
*And you think you're cock of the wark.*  
*Fowls, up! Tristy's the spry young spark*  
*That'll tread her and wed her and bed her and red her*  
*Without ever winking the tail of a feather*  
*And that's how that chap's going to make his money and mark! (383.1-14)*

어휘 “quarks”는 바다갈매기 소리로 보았지만 다른 의미도 추정해 볼 수 있겠다.<sup>6)</sup>

6) Epstein은 이 단어를 미국 물리학자인 머레이 겔만(Murray Gell-Mann)의 원자입자 연구와 관련된 용어로 보았다(Epstein 158).

“bark”를 고향치는 소리로 이해한다면 왕이 큰소리 한 마디 내지 못한 채 물러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캠벨(Joseph Campbe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바지”로 본다면 마크 왕이 찾고 있는 자신의 바지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되겠다. 이것은 『경야』 1권에서 피닉스 공원에서 HCE가 겪었던 곤경을 상기시키는데 그의 바지는 공원에 있기 때문에 이곳(체펠리조드)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이다(Cambell 245). 이 해석은 마크 왕의 처지가 곧 HCE의 처지임을 암시한다. “wark”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인 “cock of the walk”, 즉 “자신감에 도취되어 우월감에 젖어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았다. “tread”라는 단어는 수탉이 암탉을 성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남성의 공격성과 성적 행위를 동시에 암시한다. 위의 시는 마크 왕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바다백조”(seaswans, 383.15)의 노래로서 2권 4장의 중심 주제가 들어있는 전주곡이다.

이어서 트리스탄(Tristan)과 이졸데(Usolde)가 “대단한 키스”(the big kuss, 383.18)를 나누자 바다매, 바다갈매기, 마도요새, 물떼새, 황조롱이, 큰 뇌조 등 바다의 모든 새들이 일제히 낭랑하게 지저귀는데 새들은 마크 왕이 권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하며 트리스탄에 의하여 밀려나게 될 마크 왕을 경멸하고 조롱한다. 갈매기들은 따라서 그의 사회적 칭호도 마크 왕(King Mark)이 아니라 마크 씨(Muster Mark)로 격하시켜 부른다.

갈매기들로 변신한 네 사도들은 선실 유리창을 통해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몰래 엿보고 엿들으며 한숨을 짓는다. 두 젊은이가 선장실 뒤 편에 있는 15인치되는 의자에 앉아 키스를 나누자 네 노인은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트리스탄을 경기장의 운동선수로 보고 있는지 이졸데를 다루는 그의 행동을 럭비(rugger) 용어를 써서 묘사하는데 트리스탄은 럭비 공을 숨쳐 있게 굴리듯이 이졸데를 다룬다.

겔릭 투사인 그 영웅은 . . . 무시무시한 재주를 부리며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손을 내밀며 배의 이물에서 고물까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뒤집으며 험겘 자루처럼 생긴 그녀와 연합 팀을 꾸렸다. 불타는 푸른 눈을 지닌 잘 생긴 사냥꾼인 그는 그녀를 정겹게 껴안고 키스를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확실히 부적절한 행위지만 . . . 셋(Trisolanisans)에 대하여, 어떻게 한 사람이 돌진하여 하나는 둘이 되고 두 입술이 포개져 하나가 되었으나 그들 자신들이 감추어 셋이 되어 『아라 나 포그』 연극에서처럼 키스를 나누었는지에

대하여 그녀에게 알랑거리는 소리로 속삭였다.

the hero, of Gaelic champion . . . with his sinister dexterity, light and rufthandling, vicemversem her ragbags et assaucyeties, fore and aft, one and offsidess, the brueburnt sexfutter, handson and huntsem, that was palpably wrong and bulbubly improper, and cuddling her and kissing her . . . whispering and lispising her about Trisolanisans, how one was whips for one was two and two was lips for one was three, and dissimulating themselves, with his poghue like Arrah-na-Poghue. (384.23-34)

이졸데를 다루는 트리스탄의 동작을 스포츠 중계방송을 하듯이 묘사하고 육감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 서술에서 전설적인 기사인 트리스탄은 운동선수로 격하되고 그에게서는 궁중의 귀부인을 연모하는 중세 기사가 지녔을 법한 중후한 태도며 신실한 경모의 감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이상적인 로맨티시즘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숫자, 1, 2, 3은 HCE가 공원에서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던 사건을 암시하는데 특히 『경야』에서 2와 3은 두 소녀와 세 명의 병사를 나타내는 숫자로 성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두 사람이 나누는 키스를 아일랜드 극작가인 디온 부시콜트(Dion Boucicault 1820-1890)의 극 『아라 나 포그』(*Arrah na Pogue*)에 나오는 키스로 비유했는데 “pogue”는 아일랜드 영어로 키스를 의미한다. 『아라 나 포그』에서 아라는 투옥된 수양오빠를 키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여 탈출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셋 이라는 숫자는 입안의 메시지를 포함시켜 셋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ogue”는 4장에서 “poghuing and poghuing”(385.32)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 네 사도가 이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하는데 이 단어가 이들 의식과 기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네 사도는 차례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첫 화자는 조니이다. 그가 전하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는 상당히 호색적이고 선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들의 사랑행위에 “새로운 세계”의 도래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조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창문을 통해 엿보며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세계가 밀고 들어오는구나. 늙은 수탉이 소리를 질렀던 곳에서 이제 젊은 수탉이 나직하게 흥얼거린다. 폐기물 같은 왕이 문 밖으로 나가 떨어져 뜰로 내동댕이쳐졌다. 젊은이는 도둑고양이처럼 튀어올라 창문으로 들어오더니 속 셔츠바람으로 벽난로 굴뚝을 타고 짹짹 달아났다. 유순한 이졸데 속모는 다리를 느슨하게 펼쳤다. 그가 몸을 굽혀 한껏 포옹했다. 그 남자는 욕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처녀에게 이 연인은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었다.

The new world presses. Where the old conk cruised now croons the yunk.  
 Exeunc throw a darras Kram of Llawanroc, ye gink guy, kirked into yord.  
 Enterest attawonder Wehpen luftcat revol, fairescapading in his natsirt. Tuesy tumbles. And mild aunt Liza as loose as her neese. Fulfest withim inbrace behent. As gent would deem oncontinent. So mulct per wenche is Elsker woed.  
 (387.36-388.6)

조니의 서술을 거치면서 궁중 기사도 사랑은 불경스러운 정도로 비하되었다. 마크 왕은 뜰로 내쫓기고 조카인 트리스탄이 속옷바람으로 우스꽝스럽게 등장하는 장면의 묘사에서 왕과 기사 똑같이 위엄이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믹한 상황까지 연출한다. 트리스탄이 벽난로 굴뚝을 통해서 도망치는 것은 불륜의 스캔들에 휩싸였던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오셰이(Katherine O'Shea) 부인 방에 있던 벽난로 연통을 통해서 도망쳤다는 잘못된 주장을 상기시킨다. 트리스탄에게 숙모가 되는 이졸데의 모습은 너무도 외설적이다. 조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는 전혀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그들의 전설적인 사랑은 익살스럽고 저속한 소극(笑劇)이 되어버렸다.

조니에 이어서 마르쿠스의 차례인데 그의 관심사는 아일랜드가 겪어온 잔인한 역사에 쏠려있어 이야기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역사에 대한 그의 장황한 서술은 산만하고 파편적이며 두서가 없다. 하지만 함성어를 통한 언어유희적 서술방식으로 아일랜드 역사의 참상을 부각시킨 것은 백미로 보인다.

얼서, 문스터, 린스테어, 그리고 코노트에 네 개의 트리니티 대학이 있는데 이 네 큰 대학에서는 교회를 없애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서로 죽이고, 들판에서 죽이는 아일랜드의 문제에 대한 수업이 있었고 이 일(전쟁)에서 그들의 역할은 세계를 두루 통틀어 지배하는 것이다.

. . . the four trinity colleges . . . of Ulcer, Moonster, Leanstare and Cannought, the four grandest colleges supper the matther of Erryn, of Killorcure and Killthemall and Killeachother and Killkelly-on-the-Flure, where their role was to rule the round roll that Rollo and Rullo rolled round. (389.4-9)

위에서 대학에서 역사공부의 주 내용은 아일랜드에 쳐들어 온 외지인의 침략에 대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이 있는 아일랜드의 네 개 주는 얼스터(Ulster), 먼스터(Munster), 렌스터(Leinster), 코노트(Connaught)인데 이 중에서 얼서(Ulcer)는 영국이 아일랜드에 대한 식민정책에 따라 개신교 신자들을 다수 이주 시켰던 북아일랜드 주인 얼스터(Ulster)로 식민역사가 제일 많이 잔존해 있다.<sup>7)</sup> 마르쿠스는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Kill”이라는 단어를 접두사로 사용하여 “교회를 죽이고”(Killorcure), “몰살하고”(Killthemall), “서로 죽이고”(Killeachother), “평지에서 죽이는”(Killkelly-on-the-Flure)<sup>8)</sup>과 같은 합성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역사에 대한 긴 이야기 끝에 “선한 것은 가고 악한 것이 남았다. 사악함이 흘러가듯이 악은 흘러간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가는 법이지”(The good go and the wicked is left over. As evil flows so Ivel flows. Ay, ay. Ah, well sure, that’s the way, 390.29-31)라는 짤막한 문장으로 끝맺는다. 그는 전쟁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하여 마르쿠스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조니와는 달리 매우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어조로 말한다.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서로 마주 보는 장면을 보자 네 노인들은 옛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 하다.

그곳에서 그와 그녀가 서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껴안고 귀여워하자 옛 추억이 그들에게 물밀듯이 몰려왔다. . . . 우리 네 사람 앞에서 자신의 로마 가톨릭적인 두 팔로, 그의 깊숙한 시선으로 그녀의 바다처럼 푸르고 동그란 눈동자를 눈부시고 미칠 듯한 흥미한 시선으로 응시했는데. . . .

How it did but all come eddaying back to them, if they did but get gaze, gagagnianian, to her him there, kiddling and cuddling her . . . before the four

7) Epstein은 네 개의 주를 가리키는 이 어휘들은 네 주의 주민의 특성을 또한 나타낸다고 보았다(Epstein 159).

8) “Flure”는 독일어로 평지라는 뜻이 있음.



of us, in his Roman Catholic arms, while his deepseepers gazed and sazed  
and dazeczamazazed into her dullokblood rodolling olosheen eyenbowls  
rodolling olosheen eyenbowls. . . . (389.20-28)

그는 두 젊은이가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을 보고 복받쳐 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트리스탄에게 투사시킴으로써 트리스탄은 정감 넘치는 인물로 표현되었다.9) 하지만 참혹한 역사서술에서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감정을 과다하게 표출한 이 구절은 진지함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서정시에 대한 패러디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kiddle”이라는 단어도 주목할만하다. 이 단어는 물고기를 잡는 통발을 뜻하는데 문장의 맥락에서 이졸데를 껴안은 행위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 그녀를 낚는 행위로도 볼 수도 있어 고양된 서정성을 해체시키는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다.

네 사도 중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마지막 서술자는 매트이다.10) 트리스탄에 대한 매트의 서술은 조니와 마찬가지로 매우 육감적이고 거칠다. 그가 묘사하는 트리스탄 역시 근육이 발달한 스포츠 선수로 보인다.11) 그는 이졸데와 트리스탄의 “대단한 키스”(big kiss) 장면 역시 조니처럼 축구경기에 대한 중계방송을 하듯이 말한다.

왕성한 남성미를 자랑하는 미국의 우승자는 기름칠한 축구공처럼 재빠르게 앞으로 돌진하여 두 개의 라인을 뚫고 . . . 그녀의 식도라는 골대를 향하여 돌진했다.

. . . as quick, is greased pigskin, Americas Champius, with one aragan throust,  
druve the massive of virilvigtoury flshpst the both lines of forwards . . .  
rightingbangshot into the goal of her gullet.

9) “rodolling olosheen eyenbowls”의 귀절은 바이런(Lord Byron)의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Childe Harold's Pilgrimage*)에서 나오는 시구, “Roll on, thou deep and dark blue ocean, roll!”을 개작한 것이다(Epstein 159-60).

10) 네 사도 중 루카스만이 유일하게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해 서술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HCE와 ALP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논문의 section III에서 언급하였다.

11) 근육이 발달한 트리스탄의 이미지는 20 세기 초 아일랜드에서 전개되었던 게일릭 스포츠를 통한 민족주의 운동(nationalism)에 대한 패러디로도 볼 수 있다.

## Alris! (395.35-396.3)

이졸데는 트리스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이 포개지자 “joysis crisis”(395.32)라고 탄성을 지른다.<sup>12)</sup> 이 “환희에 찬 외침”은 “뱌소사!”(Jesus Christ!)라는 말로 볼 수도 있어 기쁨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위에서 “Amoricas”라는 단어는 『경야』의 시작에서 나왔던 “노스 아모리카”(North Armorica, 3.5)를 연상시킨다. “Amoricas”를 여기서는 미국으로 보았지만 전쟁을 떠올리는 갑옷(armor)과 호색적임(amorous)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된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노인들은 간접 경험을 한 듯 흥분하는데 트리스탄의 혀가 이졸데의 상아빛 치아의 두 개의 치열을 뚫자 이들은 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둔 듯 “Alris!”(396.3)라고 일제히 외친다. 이 단어는 아일랜드어로 “다시 한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연인들의 이름들을 응축시킨 합성어이기도 하다(McHugh 396). 네 노인은 경기장에서 선수를 향하여 응원하듯이 외치면서 젊은이들에 경탄한다.

자, 이제, 위로 곧장 올려서 추가골을 넣어! 경기는 정직하게 진행해야지! 네 쪽으로 잡아당겨, 남자 또는 여자가 상대방에게 하듯이! 솔직하게, 모두 다! 우리는 그녀를 키가 크고 건장한 현대적인 옛 고대의 아일랜드의 공주라고 부를 수 있지 . . . 모자 밑으로는 붉은 머리와 단단한 상아빛 치아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 . . 침실에 있는 가장 부정함 최상급의 푸른 두 눈동자, (우리는 모두 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사랑하는 사람의 다정한 승낙에 대하여!

And now, upright and add them! And plays be honest! And pullit into yourself, as on manowoman do another! Candidately, everybody! . . . There was this, wellyoumaycallher, a strapping modern old ancient Irish prisscess . . . nothing

12) 외지에서 아일랜드로 들어온 트리스탄을 전혀 거부감 없이 환영하는 아일랜드의 공주인 이졸데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5장에서 “낯선 남자를 자신의 침대로 끌어 들이는 . . . 박쥐 같은 영혼을 지닌” 여인을 상기시킨다. 스티븐은 그녀를 “a type of her race and his own”(『초상』 183, 221)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 정치성이 강하게 들어있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식민지 국가이자 여성으로 비유되었던 아일랜드와 제국이며 남성으로 비유되었던 영국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경숙, 2018 봄 한국제임스조이스 정기학술대회).

under her hat but red hair and solid ivory . . . and a firstclass pair of bedroom eyes, of most unhomy blue, (how weak we are, one and all!) the charm of favour's fond consent! (396.4-13)

위의 이졸데는 침대 위에서 농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를 연상시킨다. 네 사람은 창문을 통하여 두 연인이 있는 방을 들여다 보는데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모두 넋을 잃은 채 기도할 것도 잊고 몸을 떨며 말을 더듬는다. 하지만 매트는 이졸데를 몸집이 크고 건장한 중세의 공주에 비유하는데 이러한 이졸데의 이미지는 지적이거나 우아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노인들에게 이졸데는 정신보다는 몸으로 그녀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젊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네 노인은 젊고 힘이 넘치는 트리스탄에 비하여 마크 왕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지적하며 전혀 매력이 없는 마크 왕이 이졸데를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소위 냉정하고 논리적인 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녀를 비난할 수 있는가? 이브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지쳐빠지고 젖도 말라버린 늙은 숫양과, 그가 의무적으로 하는 지루한 키스와 기관지하며, 지루하고 늙은 털복숭이의 오랑우탄처럼 생긴 비버(바다 삶) 같으니라고, 양치기나 입는 너더리 나는 이 십육 펜스짜리 낡은 작업복 같은 바지를 입고 터벅거리며 걸어가는 꼴이러니.

...

Could you blame her, we're saying, for one psocoldlogical moment? What would Ewe do? With that so tiresome old milkless a ram, with his tiresome duty peck and his bronchial tubes, the tiresome old hairyg orangogran beaver, in his tiresome old twennysixandpenny sheopards plods drowers. . . . (396.13-17)

누가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듯 두 연인들은 네 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렬하게 키스를 나누었다. 노인들 역시 이 키스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키스를 멈추고 이졸데가 트리스탄에게서 입술을 뽀 때에도 노인들은 “퐁”(Plop, 396.33)하는 소리를 내며 이 상황을 코믹하게 표현한다. 네 노인(“the mummurrubejubes”)은 부러운 듯 연달아서 “두 사람 역시 대단해”(it was tootwoly terrific)라고 외친다(396.34). 여기서 “terrific”은 무서움(horrific)과 대단함(terrific)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이야기를 마친 네 사도(M.M.L.J.)는 매일 저녁 양로원에서 “1132년 지나간 해의 마지막 저녁에 대한 오래된 중세 법전 한 페이지”(their old one page codex book of old year’s eve 1132, 397.30-31/ 398.23)에 관련된 편지 한 두 개를 읽으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다.<sup>13)</sup> 2권 4장 끝에서 젊은이들을 태운 배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데 배는 밀려오는 조수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네 노인들이 한가롭게 맥주를 마시는 동안 배는 예정된 목적지를 향하여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 III

조이스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이야기는 풍자의 극치와도 같다. 조이스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비극적이며 로맨틱한 궁중기사 이야기를 우스꽝스런 패러디 또는 패스티쉬(pastiche)의 스타일로 재구성했다. 코믹한 패러디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에서는 사랑의 진지함이나 깊이는 느낄 수 없다. 조이스는 왜 이러한 서술방식을 택했을까? 로맨틱시즘과 감상적인 태도에 대하여 경계하는 조이스의 자조일까? 아니면 원래 코믹한 패러디 구사에 능한 조이스의 문체실험일까? 조이스의 문학적 특질들이 복합적으로 구사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더해 서 다음의 두 가지 맥락에서도 이해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경야』의 주인공인 HCE가 작품 전체를 통해 그의 마음의 저변에 언제나 자리잡고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의 심리가 2권 4장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같은 버전을 낳게 한 것이다. 『경야』 1권에서 부모인 HCE와 ALP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루어졌다면 2권에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지나 청년기에 들면서 점차 노년기에 들어선 아버지가 기력이 쇠잔해지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HCE의 꿈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2권 3장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아버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때를 지어서 HCE가 운영하는 더블린 외곽의 체펠리조드(Chaperlizod)에 있는 선술집을 향하여 행진해온다. 2권 3장의 끝에서 취객들이 모두 떠난 후 HCE

13) Codex book은 로마의 발명품으로 유라시아 문화에서 최초의 책 형태를 갖춘 것인데 कै벨은 이것을 생활 속의 규율에 대한 법령을 기록한 초기 아일랜드 법인 Brehon Law의 집대성으로 보았다(Campbell 218).

는 손님들이 남긴 술을 마시고 술집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2권 4장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꿈에서 젊은 시절에 느꼈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기억도 떠올리지만 그보다는 이제 노년기에 들어선 자신의 신변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그의 이 불안감은 아들들이 자신을 전복시키려 하는 사건을 상상하게 한다. 2권 4장에서 꿈꾸는 자는 HCE이지만 그의 마음을 전하는 서술자는 그 자신이 아니라 노인인 네 사도로 HCE는 자신의 심정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자신을 관망하는 네 노인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네 노인의 서술과 의식의 배후에는 HCE가 존재한다. 노인이 네 사람이기 때문에 HCE는 네 개의 관점과 네 가지의 서술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셈이다.

2권 3장에서 반란을 일으킨 아들들은 “부권을 상징하는 모자를 HCE에게서 탈취하며 “그가 썼던 모자를 우리가 보전할 것”(we’ll keep the hat he wore, 372.25-26)이라고 말하고 망가뜨린다.<sup>14)</sup> 아이들은 “로프로 된 깃을 두르고 머리 위의 올가미자루를 잡아당겨라”(Slip on your ropen collar and draw the noosebag on your head, 377.8-9)라고 말하여 HCE의 목에 밧줄을 매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그를 우리 위로 매달아 놓은 것은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썩 잘된 일”(Isn’t it great he is swaying above us for his good and ours, 377.36-378.1)이라고 말한다. 2권 3장의 끝에서 HCE의 신세는 아일랜드의 마지막 상급 왕(High King)인 “늙고 가련한 로데릭 오코너 왕”(His Most Exuberant Majesty King Roderick O’Conor, 381.24-25)의 신세에 비유 된다. HCE는 상실감에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급기야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의 이 혼수상태는 2권 4장에서 마크 왕의 혼수상태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그의 꿈 속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로 등장하자 HCE 자신은 마크 왕이 된 것이다.

2권의 시작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순수하고 놀이에 열중하지만 성숙해지면서 성에 눈을 뜨게 되고 권력에 대한 자각과 의지가 생긴다. 이들은 낡은 권력을 무너뜨릴 것을 꾸미고 이를 행동에 옮기며 점차 가족 중 기존의 권력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간다.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한 아들들은 2권 4장에서 트리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딸(또는 약혼녀)인 이졸데의 사랑을 쟁취함으로써 권력을 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는 자신의 부권을

14) 모자에 대한 언급은 2권 4장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어 나온다.

빼앗기는 HCE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동시에 세대교체라는 자연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2권 3장의 끝에서 “낸시 한스라는 이름의 튼튼한 배 한 척이 항해해 온다. 리피 강에서 떠내려와서. 밤의 세계(네델란드)를 향하여”(So sailed the stout ship Nansy Hans. From Liff away. For Nattenlaender, 382.27-28)라는 문장이 나온다.<sup>15)</sup> HCE에게 무리를 지어 모반을 꾀했던 아이들은 2권 4장에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두 젊은이로 압축되고 이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난다. 이것을 엿보는 네 노인에게 HCE의 심정이 투사되어 네 사도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는 것이다. 2권 4장 첫 시작에서 나오는 갈매기들의 노래는 이제 물러나야만 되는 낡은 체제와 시대에 대하여 고별을 고하는 노래이다.

HCE와 관련하여서는 루카스의 서술이 주목할 만하다. 그의 독백 역시 무척 산만하지만 그는 트리스탄 보다는 HCE와 ALP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며 HCE의 추락과 관련된 언급도 한다. 조니와 매트와 공격적이며 육감적인 어투와 달리 루카스는 애잔하고 슬픈 어조로 말하는데 노년이 엄습해 오며 따라 정신과 육신이 사그라지는 것을 실감한 듯 하다. 그는 노년기에 들어선 HCE를 가리켜 “마터 맥콜리 부인의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련한 늙은 이혼당한 남자”(her poor old divorced male, in the housepays for the daying at the Martyr Mrs MacCawley’s, 392.7-8)라고 부름으로써 HCE가 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어서 루카스는 이제 HCE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용서”(forget and forgive, 392.2)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HCE 자신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흘러 보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으로 보인다. HCE는 모든 일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 상황을 수용하는 듯 하다.

두 번째 고려해 볼 것은 『경야』의 시작에서 제시되었던 트리스탄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경야』의 1권 시작에서 나오는 트리스트랩 경(Sir Tristram)에 대한 이야기는 2권 4장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트리스탄은 지역에

15) 이 문장에서 “Nansy Hans”는 피닉스 공원 근처에 있는 술집인 “The Hole in the Wall”의 토속이름인 “Nancy Hand’s”를 가리킨다. “Nattenlaender”는 노르웨이 어로 “land of night”란 뜻이 있다.

따라서 트리스트램(Tristram)으로도 불리는데 1권 시작에서 그는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프랑스 북부의 부르타뉴 지방인 노르만디에서 아일랜드로 들어왔고 아일랜드를 정복한 후 호우드 성을 소유하고 성 로렌스 가문을 세웠던 아모리 트리스트램(Sir Armory Tristram)경이다. 작품의 시작에서 그를 가리켜 “사랑의 연주자(또는 쟁취자)”(violer d’amores, 3.4)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권 4장에서 이야기 된 셈이다. “amores”라는 단어는 연애를 의미하는 “amour”의 의미와 갑옷을 뜻하는 “armor”(armour)의 합성어로 전쟁과 사랑을 동시에 구현하는 트리스트램의 이중적 본질을 암시한다.<sup>16)</sup> 아일랜드를 정복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건너온 트리스탄은 이곳에 들어온 모든 침략자들을 대표하며 숙부의 약혼자인 이졸데를 쟁취하는데 트리스탄의 이 행동은 비단 사랑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권력에 대한 야심도 내포되어 있다. 그는 성적으로 강력한 매력을 지닌 남성이지만 동시에 공략해오는 기사이기도 하다. 이 젊은 영웅은 “남근 전쟁”(penisolate war, 3.6)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늙은 권력자를 물리치고 이졸데를 정복한다. 정치적 권력과 사랑에 대한 쟁취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비근한 예를 다시 『경야』 1권 1장에서 웰링턴 공작(First Duke of Arthur Wellesley Wellington)을 기리는 박물관인 “Willingdone Museyroom”(8.10)이라는 단어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있겠다. 이 박물관(“Museyroom”)은 인류역사에서 전쟁사의 저장고와 같다. 한편 “Willingdone”이라는 단어는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성적인 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Waterloo)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사이며 동시에 성적으로 남성적인 힘을 지녔음을 암시한다. 그는 성과 전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willing done)시킴으로써 침략과 성관계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 IV

조이스의 트리스탄-이졸데-마크 왕의 이야기에서는 켈트 전설이나 중세의 기사도 사랑에서 보는 전설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네 사도의 우스꽝

16) 사랑과 전쟁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한 단어에 압축시키는 방식은 조이스가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해체주의적 사고를 나타낸다.

스러운 이야기에서 역사의 동력을 간파해 낼 수 있다. 네 사도가 트리스탄-이졸데-마크 왕의 삼각관계에서 주목한 것은 도덕적 판단이나 열정적 사랑보다는 가정에서든 국가에서든 권력 이양에 대한 문제이다. 트리스탄-이졸데-마크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노 역사가들인 네 사도는 결과적으로 근친상간적 권력다툼이라는 정치적 주제를 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매우 희화화 시킴으로써 이상적인 로맨티시즘을 해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기만 한 로맨티시즘에 대한 회의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애러비」나 「두 건달」과 같은 조이스의 초기 작품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주제이다.

네 사도들은 남녀의 사랑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지고한 로맨티시즘을 조롱하듯이 가볍게 처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자연히 두 젊은 연인들에게 그 동안 부여해온 신화적 사랑 이야기는 『경야』에서 우스꽝스러운 패스티쉬가 되고 말았다. 『경야』의 주인공 HCE의 심저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심리 또한 트리스탄-이졸데-마크 왕의 이야기에서 로맨틱한 감정을 걷어내고 권력교체의 문제를 부각시키게 했다. 2권 4장은 네 사도가 아름다운 이졸데를 찬미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으로 끝맺는다. 자연의 순환의 질서에 따라 부권은 성장한 아들에게 이양되어 그가 계승해 갈 것이다.

(송실대)



## 인용문헌

- Campbell, Joseph and Henry Morton Robinson.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New World Library, 2005.
- Deppman, Jed. "A Chapter in Composition: Chapter II.4." *How Joyce Wrote Finnegans Wake*, edited by Luca Crispi and Sam Slote, U of Wisconsin P, 2007, pp. 304-46.
- Epstein, Edmund Lloyd. *A Guide Through Finnegans Wake*. UP of Florida, 2009.
- Glasheen, Adaline. *Third Census of Finnegans Wake*. U of California P, 1977.
- Joyce, James. *Finnegans Wake*. Introduction by John Bishop, Penguin Books, 1999.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ited by Chester G. Anderson, Viking Press, 1968.
- .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ited by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Viking, 1959.
- McHuge, Roland. *Annotation to Finnegans Wake*. The Johns Hopkins UP, 1980.

## Abstract

### Variations of the Four Evangelists (Mamalujó) on the Legend of Tristan and Isolde: A Reading of Book II, Chapter 4 of James Joyce's *Finnegans Wake*

Eunkyung Chun

The story of Tristan and Isolde is a well-known legend which has inspired western literature since the 12<sup>th</sup> century with its story of passionate love in a tragedy. James Joyce took the story and transformed it into a comic parody or pastiche in Book II, Chapter 4 of *Finnegans Wake*. The narrators of the story in *Finnegans Wake* are the four old men, Matt, Marcus, Lucas, and Johnny, who are collectively called mamalujó. They are the Four Evangelists, and they are also four secular historians. The voices and visions of the four old men reflect HCE's mind since the four old men tell HCE's dream of Tristan and Isolde.

The four old men's story is the vulgar and comic account of the cuckolding of King Mark by Tristan and Isolde on board ship. Considering their senility and limited imagination, the four old men seem unsuitable as the narrators of Tristan and Isolde. Through their narratives, the romantic ideal is denied and the original heroic romance is shrunk into a comic story. In their narratives, the great medieval legend turns into a ridiculous pastiche, deflating all the passions and tragic dimensions of Tristan and Isolde's romance. Still, Joyce chose the four old men to be the narrators of the story, and so there must be a reason for his choice.

Perhaps what Joyce is looking for in the story of Tristan and Isolde is the theme of displacement of the father by the son instead that of passionate and tragic love. The fact that a man goes to bed with his uncle's (father's)-King Mark's (HCE's) Intended can be interpreted as a generation struggle between father and son. When children grow to maturity, they threaten the older powers of the family.

In the power struggle, the old Mark-HCE's power is lost, and the young Shaun-Tristan triumphs. When the four old men mock King Mark's sexual impotence, they hint at his loss of political power. The sexual action of Tristan and Isolde signifies a political action: the supersession of the father. The theme of supersession is found on the first page of *Finnegans Wake* with the reference to Sir Tristram. His name, Sir Armory Tristram, can be read as the intermingling of the two contradictory meanings of armor and amour, that is, of war and love. Sir Tristram, the sexually potent young hero, the great lover, rearrives from over the Irish Sea to fight his phallic war, the war on the old powers and the conquest of Isolde. Politics and sexuality are intermingled in the name of Sir Armory Tristram.

■ **Key words** : Joyce, *Finnegans Wake*, Tristan and Isolde, Four Old Men (“Mamalaju”), romanticism, parody, pastiche  
(조이스, 『피네건의 경야』, 트리스탄과 이졸데, 네 노 사도, 로맨티시즘, 패러디, 패스티쉬)

논문접수: 2018년 5월 18일

논문심사: 2018년 6월 7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15일